韓國·中國의 握手에 關한 硏究

유 관 순
건양대학교 생활과학부 의상학 전공 조교수

A Study of Korean and Chinese Aksu(握手)

Kwan-Soon, Yoo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Division of Human Ecology, Kon Y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ksu(握手), a kind of shroud.

This study classifies Aksu by its size, shape, cloths and color.

Korean Aksu through literatures are as follows. The length of Aksu was one Ch'ok(尺) two Ch'on(寸) and the width of Aksu was five Ch'on. The surface of Aksu were mostly black and the lining was mostly red. The cloths of Aksu were Paek(帛) and Chu(紬).

Aksu through relics was various in size and the cloths were Kongdan(貢緞), Myongchu(明紬) and Sa(紗) and the color was various.

Actual conditions of current Aksu were various. The size, shape, cloths and color were more variable than the literatures and relics. The band of Aksu was all two.

In the Chinese Aksu through literatures, the length was one Ch'ok two Ch'on and the width was five Ch'on. The cloths of Aksu were Paek and Kyon(絹). The surface of Aksu were mostly black and the lining was mostly red. Aksu in Munkonggaryoieuichul(文公家禮儀節) was tide by the strings of four corners.

The Size of the Korean Aksu was the same as Chinese Aksu. The shape of the current Aksu was various than the literatures and relics.

Key Word : 악수(握手 Aksu), 형태(shape), 크기(size), 의차(cloths), 색(color)

Ⅰ. 緖 論

인간이 來世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關門的 의미로 보아왔던 죽음에 대한 엄격한 儀禮는[1][2] 朝鮮朝의 禮에 대한 활발한 硏究와 더불어 禮制 확립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3][4][5] 특히 朝鮮朝에서는 儒敎를 治國의 理念으로 삼아 朱子家禮를 근본으로 하여, 주자의 家禮에 근거한 저서가 200여 종류나 간행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론적인 근거는 물론 실행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儒敎의 家禮가 보급되었다.[6][7]

특히 冠婚喪祭 중에서도 어느 의식보다도 禮를 갖추어 정중하게 치름으로써 고인의 영혼을 위로하던 중요한 의식인 喪禮에[8][9][10]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喪服에 관한 부분은 물론, 돌아가신 분에게 입혀드리고 관속에 넣어드리는 예복으로서의 襲衣인 襚衣의[11][12][13] 여러 品目에 관한 論議도 빈번하게 행하여졌다.

그런데 襚衣의 여러 品目 중에서 男女 共用 品目 중의 하나인 手衣로서의 握手는 文獻的 內容에서 뿐만이 아니라, 遺物과 現行 襚衣의 품목에서도 빠짐없이 必須 品目으로서 제시되어 있고, 禮問答書의 논의에서도 握手에 관한 활발한 의견을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男女 襚衣의 共用 品目의 하나인 握手에 대하여, 조선조의 禮書를 중심으로 한 文獻的인 내용과 遺物·現行에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중국 문헌의 내용과도 비교하여 봄으로써, 握手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은 물론, 襚衣에 관련된 내용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 및 목적을 둔다.

分析內容은 文獻과 유물·現行에 나타난 握手의 치수와 形態, 握手의 갯수, 끈의 갯수, 使用法, 衣次, 色등에 관한 내용 비교를 중심으로 하였다.

문헌적인 내용은 조선시대의 禮書 중 朱子家禮를 근거로 한 여러 저서 중 널리 알려진 李縡의 「四禮便覽」을 비롯하여[14][15][16][17][18][19][20] 「常變通攷」,[21] 家禮考

---

1) 白英子, 韓國의 服飾. 경춘사, 1996. pp.464-465.
2) 임재헌, 傳統喪禮. 대원사, 1996. pp.8-15.
3) 趙孝順, 服飾. 대원사, 1996. p.101.
4) 金東旭, 韓國服飾史 硏究. 亞細亞文化社, 1973. p.80.
5) 柳喜卿, 韓國服飾史 硏究. 梨花女大 出版部, 1983. p.541.
6) 張哲秀, 韓國傳統社會의 冠婚喪祭.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8. pp.16-17.
7) 朴聖寶, "朝鮮前期 出土服飾硏究". 服飾. 第19號. 韓國服飾學會. 1992. p.12.
8)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 硏究. 一志社, 1988. p.301.
9) 李樹鳳, 百濟文化圈域의 喪禮風俗과 風水說話硏究 - 湖西·湖南地方을 中心으로 -.百濟文化開發硏究院, 1986. p.9.
10) 劉寬順, "우리나라 襚衣에 關한 硏究 -朝鮮朝를 中心으로-". 博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大學院, 1990. p.6.
11) 趙又玄, "朝鮮時代 喪服에 關한 硏究". 博士學位論文. 淑明女大 大學院. 1989. pp.156-157.
12) 임명미, 한국의 복식문화(Ⅱ). 경춘사, 1997. p.531.
13) 劉頌玉, 韓國服飾史. 修學社, 1998. p.331.
14) 金斗憲, "五服制度의 硏究". 震檀學報. 第5卷. 1936. p.43.
15) 李正玉, "韓國의 四禮服飾에 關한 一硏究 ". 硏究論文集. 第8輯(自然編). 嶺南大學校, 1974. p.402.
16) 張哲秀, 前揭書. 1988. pp.11-16.
17) 朴惠仁, 韓國의 傳統婚禮硏究. 高麗大 民族文化硏究所, 1988. pp.5-6.
18) 劉寬順, "中國襚衣의 文獻的 考察". 服飾. 第25號. 韓國服飾學會, 1995. pp.105-107.
19) 임돈희, 祖上祭禮. 대원사, 1996. p.8.
20) 李縡 編, 四禮便覽. 卷 3. 喪禮 1. 張 10.
21) 柳長源 著, 常變通攷. 卷 7. 張 28-29.

證」,[22] 「家禮輯覽」,[23] 「疑禮問解」,[24] 「家禮源流」,[25] 「家禮增解」,[26] 「喪禮備要」,[27]등의 내용을 근거로 하였고, 中國의 禮書는「家禮」,[28] 「文公家禮儀節」,[29] 「儀禮」,[30] 「大明集禮」,[31] 등에 나타난 握手에 관한 論議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유물과 현행의 내용은 이미 발표된 本人의 논문에[32] 根據하여 比較 硏究하였다.

1. 握手에 대한 槪念

握手는 襪衣에 갖추어야 할 품목 중의 하나로써, 남자와 여자 모두 공통으로 사용되는 품목이다. 악수의 개념에 대하여 四禮便覽에[33] 의하면, '裹手者'라고 하여 '손을 싸는 것'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裹(과)는 싸다, 감싸다의 뜻으로 영어의 wrap, bind의 意味와 동일하다.[34]

辭典的 意味로서의 襪衣와 關聯된 악수는 '斂襲시에 시신의 손을 싸는 헝겊 또는 보(褓)'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흔히 인사 시에 하는 악수는 '서로 손을 마주 잡거나 친애·화해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손을 마주 잡는 서양식 예의'라고 할 수 있다.[35][36][37]

대부분의 악수 표기는 한자로 '握手' 라고 명기되고 있는데, '幄手'라고도 사용할 수 있으며[38][39], 한자의 사전적 풀이로 볼 때 握手의 본 뜻은 오히려 서로 손을 쥐는 현대식 인사시의 악수와 더 가까운 면을 지니고 있으며, 襪衣 품목으로서의 악수는 裹手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 악수는 손싸개,[40] 손집, 손보[41]는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문헌에서의 명칭과 동일하다.

Ⅱ. 握手에 관한 考察

1.朝鮮時代의 握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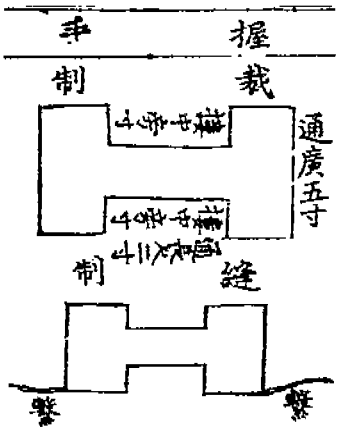
1) 文獻上

(1) 握手의 치수와 形態에 관한 論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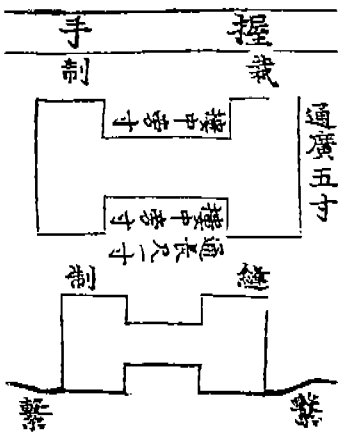
「家禮源流」,「家禮輯覽」,「家禮增解」에서의 握手의 치수와 형태에 관한 논의와[42][43][44] 〈그림 1〉 - 〈

22) 曹好益 撰, 金堉 等 編, 家禮考證. 卷 6. 張 14-16.
23) 金長生 輯, 家禮輯覽. 卷 4. 張 18-19.
24) 金長生 編, 疑禮問解. 卷 1. 張 51.
25) 兪棨·尹宣擧 撰, 家禮源流. 卷 6. 張 19.
26) 李宣朝 著, 家禮增解. 卷 3. 張 75.
27) 申義慶 著, 喪禮備要. 卷 上. 張 6.
28) 朱熹 編, 家禮. 卷 4. 喪禮 1. 張 5.
29) 丘濬 輯, 文公家禮儀節. 卷 4. 張 4.
30) 鄭玄注, 賈公彦疏, 儀禮. 卷 12. 張 2.
31) 太祖撰, 大明集禮. 卷 37. 張 2., 張 42.
32) 劉寬順, 前揭書. 1990.
33) 四禮便覽. 卷3. 喪禮1. 張10.
34) 弘字出版社 編輯部, 國漢最新大字源. 民衆書林, 1984. p. 699.
35) 金英淑, 韓國服飾史辭典. 民文庫, 1988. p337.
36) 신준호, 한국민속대사전. 민족문화사, 1991. p. 967.
37) 李熙昇, 國語辭典. 民衆書林 編輯局, 1997. p. 1716.
38) 李熙昇, 上揭書.
39) 신준호, 전게서.
40) 조휴문(남), 67세, 전남 승주군 주암면 거주, 1990.1.16. 본인과 면담.
41) 한월순(여), 69세, 경북 안동시 안흥동 거주, 1990. 1. 18. 본인과 면담.
42) 家禮源流. 卷 6. 張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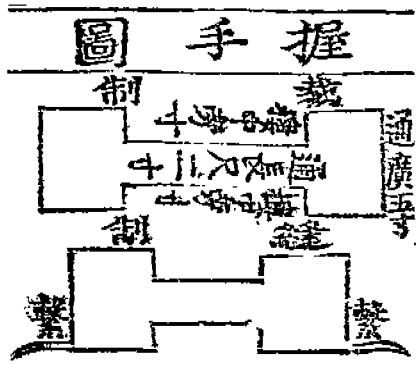
그림 3)을[45][46][47] 보면, 〈士喪禮〉에 握手의 길이는 1尺 2寸이고, 넓이는 5寸이며, 牢(音은 '樓'임.)中旁寸이고, 著하고 組繫한다고 되어 있고, 註에는 牢는 讀音이 루인데, 樓는 握의 중앙을 削約해서 손에 두는 것이다. 今文에 樓는 緁로 되어 있고, 旁은 方으로 되어 있다. 疏에 이 옷을 이름하여 握이라고 하



<그림 1> 握手圖(家禮源流. 卷 6. 張 25.)



<그림 2> 握手圖(家禮輯覽. 圖說. 張 36.)



<그림 3> 握手圖(家禮增解. 卷 4. 張 28.)

는데, 그것이 손에 있기 때문에 握手라고 말한 것이니, 손을 握한다는 말은 아니라고 하였다.

經에 이르기를 "넓이는 5寸이고 牢中方寸"이라 하니 즉, 중앙의 넓이가 3寸으로, 중앙은 四指를 포용하며, 四指는 指가 1寸이니, 즉 4寸이다. 4寸 밖에 그대로 8寸이 있는데 모두 넓이가 5寸인 것이다.

牢의 讀音이 樓를 따르는 것은 뜻이 樓斂挾少의 뜻을 취한 것이다. 削約이라는 것은 削해서 約少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著는 솜으로 채우는 것이고, 組繫는 매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牢中方寸에 대한 論議가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끈의 갯수에 관한 論議를 「疑禮問解」[48]에서 보면," 「家禮」의 握手의 制는 양끝에 각각 繫가 있고, 「儀節」에는 4角에 모두 繫가 있으며, 退溪가 말하기를 '4각에 繫가 있어 묶는 것이 便易하다'하니 그 說이 어떠합니까?"라는 물음에 답하기를 "握手의 兩繫는 「禮經」에 분명하되, 退溪가 비록 說을 두었으나 따르기가 어려울 듯하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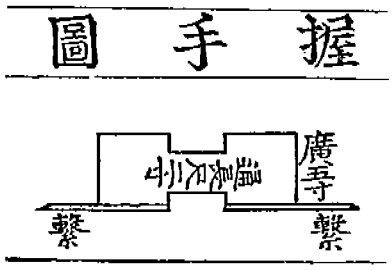
또한 屛溪가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氣가 없게

43) 家禮輯覽. 卷 4. 張 18-19.
44) 家禮增解. 卷 3. 張 75.
45) 家禮源流. 卷 6. 張 25.
46) 家禮輯覽. 圖說. 張 36.
47) 家禮增解. 卷 4. 張 28.
48) 疑禮問解. 卷 1. 張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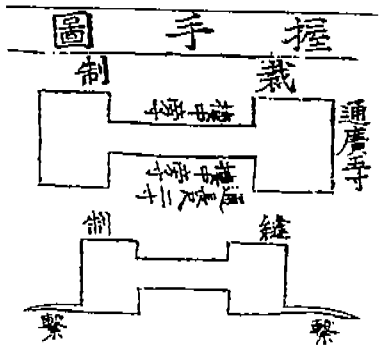
되어 손가락은 자연히 모두 굽어지는데 握手를 사용하는 것은 그 손가락이 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여 握手 사용의 진정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握手의 치수는 「四禮便覽」,[49][50] 「喪禮備要」,[51][52] 「家禮考證」,[53] 「家禮增解」[54] 등에도 밝혀져 있는데, 모두 指尺을 기준으로 길이가 1尺 2寸이었고 폭은 5寸이었다. 「四禮便覽」에는 끈의 길이가 명시되어 있는데, 한쪽은 1尺 5寸~6寸이고, 한쪽은 3尺이다.

「家禮輯覽」[55]에서도 길이가 1尺 2寸이고, 양끝에 각각 4寸을 남겨두고 중앙의 4寸을 취하여 양변을



<그림 4> 握手圖(四禮便覽. 卷 3. 喪圖. 張 2.)



<그림 5> 握手圖(喪禮備要. 圖. 張 4.)

각각 1寸씩 削除한다. 혹은 한 변의 1寸 정도를 削除한다. 양 끝 상하 角에 모두 繫가 있다고 하였다.

(2) 握手의 갯수에 관한 論議

「家禮輯覽」[56]에서 말하기를 근세에 握手는 하나로 쓰는데, 退溪가 말하기를 "요즈음 사람이 혹 握手는 1幅을 써서 손을 싼다고 말을 하나 틀린 것이다"라고 하였다.

「常變通攷」[57]에서 退溪가 말하기를 "握手는 「儀禮」本文에 분명히 2개를 써서 양손에 각각 하나씩 쓴다고 하였는데, 지금 힘써 하나를 쓴다는 설을 주장하여 양손을 묶어 배에 얹는 것은 평상시의 拱手(두 손을 합함)한 형상을 본뜬 것이라고 하는 說이 있다. 그러나 그 說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양손을 함께 結하여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지극히 편안하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양 팔뚝의 마디를 둔 곳이 그 좌우 갈비뼈 아래 髀上(넓적다리뼈 윗 부분) 사이에 놓여 가로로 비켜 어그러져서 형세가 順適하지 못하고, 또 평시에 拱手한 것을 본떴다는 說은 옛날부터 근거가 없는 것이다. 하물며 屍身을 斂襲하는데 順適함을 취하지 못하고, 억지로 端拱(단정하게 손을 합함)하는 형상으로서 더하는 것은 더욱 실정에 가깝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여 握手를 하나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역시 「家禮考證」[58]에서도 握手의 갯수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 사람을 보았는데 「家禮」의 握手에 대하여 고집스럽게 양손에 한 개를

49) 四禮便覽. 卷 3. 喪禮 1. 張 10.
50) 四禮便覽. 卷 3. 喪圖. 張 2.
51) 喪禮備要. 卷 上. 張 6.
52) 喪禮備要. 圖. 張 4.
53) 家禮考證. 卷 6. 張 14.
54) 家禮增解. 卷 3. 張 75.
55) 家禮輯覽. 卷 4. 張 19.
56) 同上.
57) 常變通攷. 卷 7. 張 29.
58) 家禮考證. 卷 6. 張 15-16.

쓴다고 하였다. 이것은 「儀禮」에서 말한 것을 보지 못하고 '手纔相對'(손이 겨우 상대한다.)라는 말과 「家禮」에서 단지 握手라고만 말하고 充耳 2, 履 2와 같이 그 수를 기록하지 않은 것에 미혹하여서 말한 것이니, 매우 가소롭다. '손이 겨우 相對한다'는 것은 손이 握手와 상대한다는 것이지, 양손이 相對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문자間의 詳細하고 疏略함이 우연하게 같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襪'자 아래에 어떻게 '2'字가 없겠는가? 이것이 어찌 한 개의 버선에 양발을 신을 수 있기 때문인가? 무엇보다 양손에 하나를 쓴다면, 비단 양손이 側立해져서 불안할 뿐만 아니라 손을 교차하여 묶는 것이 '莊子'에서 말한 '交臂歷指'같은 것이니, 이것을 어찌 孝子가 차마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라고 하여 2개의 握手를 써야 함을 정당화하고 있다.

(3) 握手의 使用法에 관한 論議

악수의 사용법에 관하여 「疑禮問解」[59]에서는 먼저 右手의 掌을 握의 攥中에 두고, 먼저 拇指邊의 一端으로 拇指사이를 지나 手背를 싸고, 繫로써 감아 한 번 돌리고 다시 위로부터(拇指邊이 위가 된다.) 바르게 놓고 다시 季指邊의 一端으로 手背를 싸고 그 繫로써 拇指 사이를 지나 掌心을 지나 手表를 지나서 中指에 고정시키고, 다시 拇指사이를 지나고 또 掌心을 지나 手表를 따라서 먼저 바르게 놓은 것과 掌後節에서 맨다.

또한 「家禮輯覽」[60]에는 '握'은 물건을 시신의 손 가운데에 두어서 쥐게 한다고 되어 있다. 握手의 중앙 4寸을 손안에 두고, 다시 그 양 끝의 4寸으로 손의 겉을 싸서 겹치게 서로 싸고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握手는 손 전부를 싸는 것이 아니라 엄지손가락을 뺀 다른 손가락만 싸서 묶는 것이다.[61]

(4) 握手의 衣次와 色

握手는 「四禮便覽」[62]에서는 帛 또는 紬을 사용하며 안은 纁色이고, 「喪禮備要」[63]에서는 玄帛 혹은 紬를 사용하며, 裏는 纁色이다. 「家禮輯覽」[64]에서는 玄帛을, 「家禮源流」[65]와 「常變通攷」[66]에서는 帛을, 「家禮增解」[67]에서는 帛을 사용하였으며, 겉은 玄色, 안은 纁色이었고, 「家禮考證」[68]에서도 겉의 색은 玄色, 안은 纁色이었다.

2) 遺物上

遺物에서의 握手는 溫陽民俗博物館의 安東金氏墳墓發掘調査報告書, 石宙善民俗博物館의 特別展, 文化財管理局의 重要民俗資料指定調査報告書 등의 內容을 중심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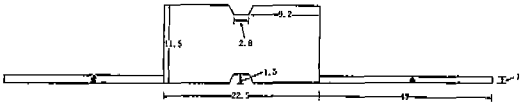
(1) 握手의 치수와 形態

① 握手 1

金海 許氏 墓에서 出土된 握手 1의 치수와 형태를 보면 〈그림 6〉, 〈사진 1〉과 같다. 좌우 한 쌍이며, 크기는 가로 22.5㎝, 세로 11.5㎝이고, 손바닥이 놓이는 부분은 가로 2.8㎝, 세로 8.5㎝이다. 끈은 하단 좌우에 2개가 달려 있는데, 치수는 폭 1㎝, 길이

59) 疑禮問解. 卷 1. 張 51.
60) 家禮輯覽. 卷 4. 張 22.
61) 金漢重, 安東誌. 故鄕文化史, 1987. p. 172.
62) 四禮便覽. 卷 3. 喪禮 1. 張 10.
63) 喪禮備要. 卷 上. 張 6.
64) 家禮輯覽. 卷 4. 張 18.
65) 家禮源流. 卷 6. 張 19.
66) 常變通攷. 卷 7. 張 29.
67) 家禮增解. 卷 3. 張 75.
68) 家禮考證. 卷 6. 張 14.

49cm로 2개가 같다.[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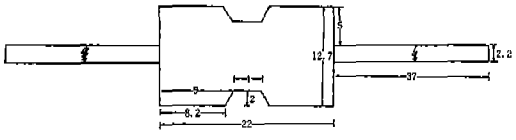


<그림 6> 握手 1(金海 許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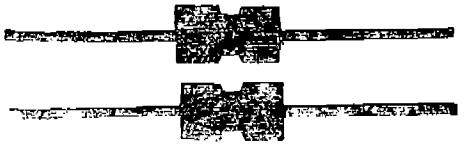
<寫眞 1> 握手 1(金海 許氏)

② 握手 2

握手 2는 安東 金氏 일가의 墓에서 出土된 것으로, 치수와 형태는 〈그림 7〉, 〈寫眞 2〉와 같다. 크기는 가로 22cm, 세로 12.7cm로 握手 1보다 세로 길이가 1.2cm길며, 손바닥이 놓이는 부분은 가로 4cm, 세로 8.7cm이다. 끈의 치수는 폭 2.2cm, 길이 37cm로 좌우에 2개가 달려 있다.[7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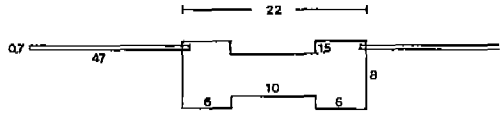
<그림 7> 握手 2(安東 金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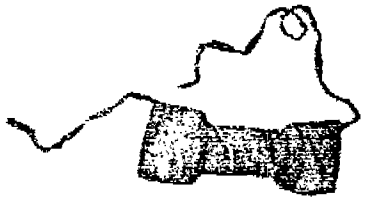
<寫眞 2> 握手 2(安東 金氏)

③ 握手 3

握手 3은 傳朴將軍墓에서 出土된 것으로 치수와 형태는 〈그림 8〉, 〈寫眞 3〉과 같다.[72] 크기는 가로 22cm, 세로 8cm이고, 손바닥이 놓이는 부분은 가로 10cm, 세로 5cm이며, 끈은 2개이고 폭은 0.7cm, 길이는 47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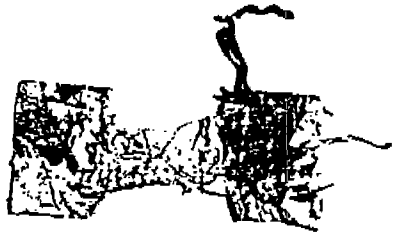
<그림 8> 握手 3(傳朴將軍)



<寫眞 3> 握手 3(傳朴將軍)

④ 握手 4

握手 4는 廣州 李氏의 墓에서 출토된 것으로 형태는 〈寫眞 4〉와 같으며,[73] 크기는 가로 25cm, 세로 11cm이다. 손바닥이 놓이는 부분의 가로길이는 보고서에 나타나 있지 않고 세로 길이는 6cm이다.



<寫眞 4> 握手 4(廣州 李氏)

69) 柳喜卿 · 金美子 · 姜淳弟, 安東金氏 墳墓 發掘 調査 報告書. V.斂襲衣. 溫陽 民俗博物館學藝硏究室, 1989. p.281, p.317.

70) 同上.

71) 國立民俗博物館, 韓國 喪葬禮. 미진사, 1990. p.80.

72) 金東旭 · 劉頌玉, 忠北 靑源郡 傳朴將軍墓 出土遺物. 重要民俗資料指定調査報告書. 第83號. 文化財管理局, 1980. pp.68-69.

73)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第2回壽衣特別展. 1982.

⑤ 握手 5

握手 5는 全州 李氏의 墓에서 出土된 것으로, 형태는 〈寫眞 5〉와 같다. 크기는 가로 27㎝, 세로 11.5㎝이다. 손바닥이 놓이는 부분의 가로길이는 나타나 있지 않고 세로 길이는 7㎝이며, 끈의 길이는 60㎝이다.[74][75]

<寫眞 5> 握手 5(全州 李氏)

(2) 握手의 衣次와 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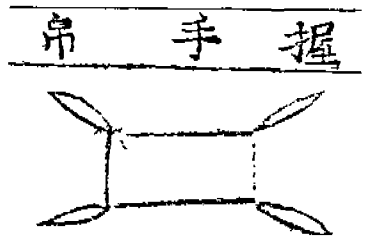
握手 1의 衣次와 色을 보면 겉은 짙은 갈색 貢緞, 안은 연한 갈색 貢緞이며, 握手 2의 衣次는 대화단이고, 색은 미색이다. 握手 3의 衣次와 色은 素色 明紬이고, 握手 4의 衣次와 색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握手 5의 의차는 겉은 貢緞이며, 안은 화문사이다. 이 외에 신종록에 나타난 악수의 의차와 색을 보면 「正文公愼終錄」[76]은 겉이 冒色大貢緞, 안이 紅貢緞인데 비해서, 「忠文公愼終錄」[77]은 겉이 黑貢緞, 안이 藍貢緞으로 차이를 보이며, 「韓山李氏愼終錄」[78]은 겉이 紫的貢緞, 안이 藍貢緞으로 衣次와 色이 겉과 안이 서로 달랐다.

2. 中國 禮書上의 握手

1) 握手의 치수와 形態

中國 文獻에서의 握手의 치수와 形態를 보면, 「家禮」,[79] 「大明集禮」의 庶人편,[80] 「文公家禮儀節」,[81] 「儀禮」[82]에서 모두 길이는 1尺 2寸이고, 폭은 5寸으로 나타나 있고, 「文公家禮儀節」에서는 熟絹 2幅이 소요되는데 매 幅 당 길이 1尺2寸 폭 5寸으로 자세히 명시하고 있으며, 「大明集禮」의 唐나라 편[83]에서는 길이 1尺2寸만 제시되어 있어 치수가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形態 면에서 「文公家禮儀節」에서는 〈그림 9〉와 같은 형태로, 끈이 4개인 점이 달랐다.[84]



<그림 9> 握手圖 (文公家禮儀節. 卷 4. 張 33.)

2) 握手의 使用法

握手의 使用法에 대하여 「家禮」[85]에서는 양끝에 각각 끈을 두어 손등에서 끈을 매게 된다고 하였으며, 「文公家禮儀節」[86]에서도 양끝에 끈이 있다고 하였다.

---

74) 同上.
75) 石宙善, 衣. 石宙善紀念 民俗博物館, 1985. p.140.
76) 正文公愼終錄(金洙根:1798-1854). 襲具.
77) 忠文公愼終錄(金炳國: 1825-1904). 襲具.
78) 韓山李氏愼終錄(金貞圭의 妻<韓山李氏>:1865-1915). 襲具.
79) 家禮. 卷 4. 喪禮 1. 張 5.
80) 大明集禮. 卷 37. 張 42.
81) 文公家禮儀節. 卷 4. 張 4.
82) 儀禮. 卷 12. 張 2.
83) 大明集禮. 卷 37. 張 2.
84) 文公家禮儀節. 卷 4. 張 33.
85) 家禮. 卷 4. 喪禮 1. 張 5.
86) 文公家禮儀節. 卷 4. 張 5., 張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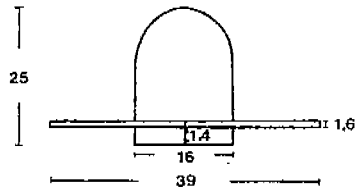
3) 握手의 衣次와 色

握手의 色은 「家禮」,[87] 「大明集禮」 의 唐,[88] 「儀禮」[89]에서 玄纁으로 되어 있고, 「大明集禮」 의 宋[90]에는 緇纁으로 되어 있으며, 「大明集禮」의 庶人[91]의 경우와 「文公家禮儀節」[92]에서는 衣次가 帛과 熟絹으로 나타나 있다.

3. 韓國 現行 握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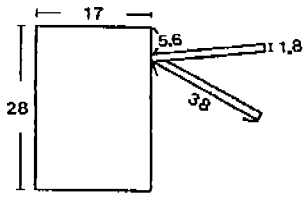
1) 握手의 치수와 形態

現行 握手의 치수와 形態를 보면, 〈그림 10〉~〈그림 16〉, 〈寫眞 6〉~〈寫眞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길이는 16㎝~34㎝, 폭은 13.5㎝~28㎝로 다양하며, 形態도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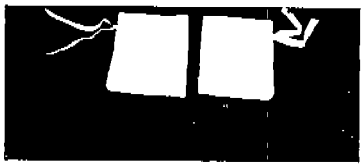


<그림 10> 握手 1(葬儀社藏 男子上品의 模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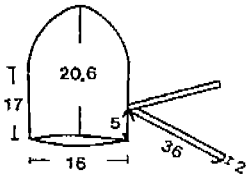
<寫眞 6> 握手 1(葬儀社藏 男子上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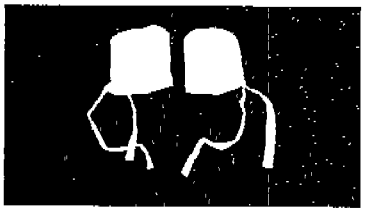
<그림 11 > 握手 2(葬儀社藏 男·女 下品의 模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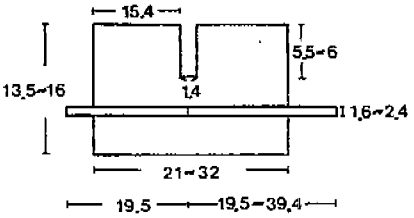
<寫眞 7> 握手 2(葬儀社藏 男·女 下品)



<그림 12> 握手 3(정한진藏의 模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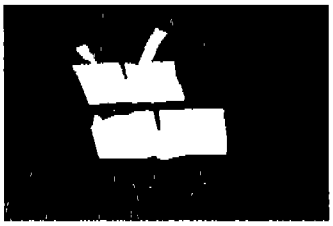
<寫眞 8> 握手 3(정한진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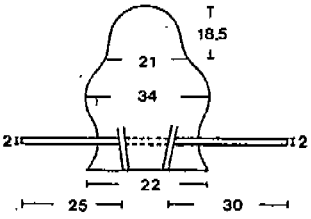
<그림 13> 握手 4(정화자藏, 葬儀社藏 女子上品의 模型圖)

<寫眞 9> 握手 4(葬儀社藏 女子 上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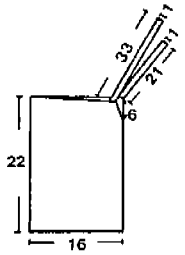
87) 家禮. 卷 4. 喪禮 1. 張 5.
88) 大明集禮. 卷 37. 張 2.
89) 儀禮. 卷 12. 張 2.
90) 大明集禮. 卷 37. 張 2.
91) 大明集禮. 卷 37. 張 42.
92) 文公家禮儀節. 卷 4. 張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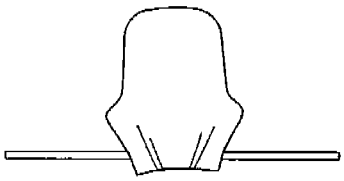
<寫眞 10> 握手 4(정화자藏)



<그림 14> 握手 5(尹寓藏의 模型圖)



<그림 15> 握手 6(金日山藏의 模型圖)



<그림 16> 握手 7(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 침선장 정정완의 손길-전시회 도록)[93][94]

2) 握手의 衣次와 色

握手의 衣次는 삼베, 明紬, 貢緞, 인조견, 옥양목, 당목, 인조 마포 등이었으며, 색은 白色, 黑色, 紫色, 玉色, 白色에 가까운 연한 색 등이었다.

Ⅲ. 韓國·中國 握手의 比較

앞에서 제시한 조선시대 예서·유물·현행·중국 예서를 통해서 본 악수의 비교내용을 表로 나타내면 〈表 1〉과 같다.

치수의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조선시대 예서에서의 악수의 치수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길이 1척 2촌, 폭 5촌으로 치수가 동일하였고, 유물에서의 악수는 길이가 22, 22.5, 25, 27㎝ 등으로 22-27㎝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고, 폭은 8, 11, 11.5, 12.7㎝등으로 8-12.7㎝의 범위를 나타내어 길이와 폭이 다양하였다.

현행에서의 악수의 치수는 앞에 제시한 그림을 통하여 보면, 길이 16-34㎝, 폭 13.5-28㎝로 유물과 같이 다양한 길이와 폭을 나타내어 준비자의 형편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衣次의 내용을 보면, 朝鮮時代와 中國의 禮書에서 帛의 사용이 두드러졌고, 紬와 絹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遺物에서는 貢緞, 明紬, 紗의 사용이 두드러졌고, 현행에서는 삼베와 明紬, 貢緞의 사용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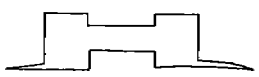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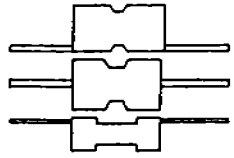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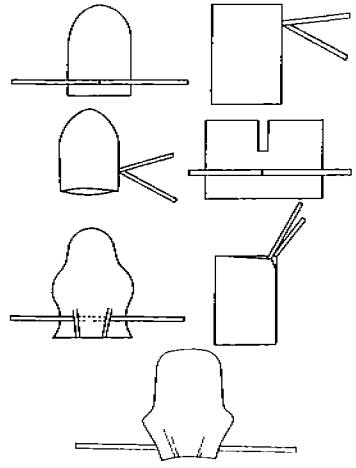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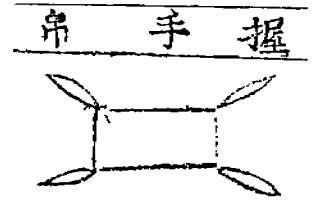
색의 내용을 보면, 朝鮮時代의 禮書에서는 겉이 玄, 안이 纁으로, 中國 禮書에서는 겉과 안이 玄과 纁, 緇와 赬으로 겉이 검은 색, 안이 붉은 색이어서 같은 내용을 나타내었다. 유물에서는 진갈색, 연갈색, 미색, 소색, 흑색, 자적색, 남색, 홍색 등 다양한 색을 나타내었고, 현행에서는 유물에서와 같이 다양한 색은 아니었으며 백색, 소색, 백색에 가까운 연한 색이 主를 이루었다.

형태의 내용을 보면, 조선시대 예서들의 내용이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표 1에서는 한 개의 그림으로 대신하여 나타내었고, 중국의 예서에서는 문공가례의절에서와 같이 끈이 4개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인용 제시하였다.

---

93) 정정완,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침선장 정정완의 손길-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주최. 전시회 도록. 탄생Ⅳ. 1999. 4.
94) 國立文化財硏究所, 針線匠. 계문사, 1998. pp. 209-210.

<표 1> 握手의 치수·形態·衣次·色의 比較

區分 / 文獻 / 內容		朝鮮時代의 禮書							遺物	現行	中國의 禮書					
		喪禮備要	家禮輯覽	家禮源流	家禮增解	常變通攷	家禮考證	四禮便覽			家禮	大明集禮 唐	大明集禮 宋	大明集禮 庶人(唐,宋)	文文公家禮儀節	儀禮
치수	길이	1尺2寸	左同	左同	左同	左同	左同	左同	22cm~27cm	16cm~34cm	1尺2寸	左同		1尺2寸	左同	左同
	폭	5寸	左同	左同	左同	左同	左同	左同	8cm~12.7cm	13.5cm~28cm	5寸	左同		5寸	左同	左同
衣次		帛,紬	帛	帛	帛	帛		帛,紬	공단/대화단/명주/공단·화문사裏/	삼베/명주/공단/인조견/옥양목/ 당목/인조마포/				帛	帛, 熟絹	
色	表	玄	玄		玄		玄		진갈색,연갈색裏/미색/소소색/모색,홍裏/흑색,남裏/	백색/흑색/소색/옥색/백색에 가까운 연한 색/	玄	玄	緇			玄
	裏	纁			纁		緇	緇	자적색,남裏/		纁	纁	縓			纁
形態											 文公家禮儀節 卷 4. 張 33.					

유물에서의 끈의 위치는 폭의 한쪽 부분에 치우친 경우와 폭의 중앙 부분에 위치한 경우가 있었으며, 손바닥이 놓이는 가운데 부분의 기본형태는 유사하나, 치수에서 손바닥이 놓이는 부분의 가로가 2.8-10㎝, 세로가 5-8.7㎝로 차이를 보여 형태의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조선시대 예서와 유물에서의 악수의 형태가 비교적 유사하였다. 특히 현행에서의 악수의 형태는 여러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조선시대 예서와 유물에서와 같이 가운데가 파여지고 양쪽 가장자리에 끈이 달리는 형태는 거의 없었고, 유사한 형태의 경우라도 끈이 악수의 중앙에서부터 달린 경우가 많았다.

〈表 1〉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형태상 삼면이 막히고 한 쪽 면만 터놓은 자루 모양이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손 전체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지배적이었다. 또한 손 전체가 들어가더라도 모서리가 사각형 형태로 각이 진 경우, 또는 손목부분은 각이 지고 손가락이 놓이는 부분은 벙어리 장갑의 손가락 부분의 곡선처럼 동그랗게 된 형태도 있었으며, 벙어리 장갑의 형태를 변형한 또 다른 악수의 형태도 볼 수 있었다.

끈의 갯수는 모두 2개였으며, 끈의 위치도 손목 부분에서 묶도록 되어 있는 형태가 지배적이었다.

이상에서 볼 때 악수의 형태 면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알 수 있으며, 악수의 사용이 사람이 죽으면 氣가 없게 되어 손가락이 자연히 모두 굽어지기 때문에 그 손가락을 펴지게 하려고 하는 기능상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동일하지만, 조선시대 예서와 유물에서는 손을 싸서 묶는 의미의 형태가 주된 형태인데 비하여, 현행에서는 장갑을 끼는 것처럼 손 전체를 집어넣은 후 끈으로 묶는 형태가 주를 이루어 형태상의 변천적 특징을 알 수 있었다.

Ⅳ. 結 論

이상과 같이 韓國 文獻과 遺物, 現行과 中國 文獻에서의 握手에 대하여 치수 및 形態, 衣次, 色 등을 比較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韓國 文獻에서의 握手에서는 여러 禮問答書에서 握手의 치수와 形態, 갯수 등에 관한 論議가 있었다. 치수는 길이 1尺 2寸, 폭 5寸이었으며, 形態는 동일하였고 끈의 수는 거의 2개였다. 衣次는 帛이나 紬가 대부분이었고, 색은 겉은 검은 색, 안은 붉은 색이 많았다.

2. 遺物에서의 握手는 치수가 다양하였고, 形態는 거의 동일하였으나, 끈의 위치가 조금씩 달랐다. 衣次는 貢緞, 明紬, 紗 등이었고, 色도 多樣하였다.

3. 現行에서의 握手는 文獻이나 遺物에서의 內容과는 달리 치수와 形態가 여러 가지였다. 또한 衣次와 色도 多樣하여 많은 변화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4. 中國에서의 握手는 치수에 있어 길이가 1尺 2寸, 폭 5寸이었고, 衣次는 帛이나 絹이었으며, 色은 玄纁, 緇綬 등으로 겉은 검은 색, 안은 붉은 색이었고, 形態에서는 끈이 4개인 경우도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5. 握手의 치수, 形態, 衣次, 色 등을 比較해 본 結果, 치수는 韓國과 中國 文獻에서의 內容이 동일하였고, 衣次와 色은 상당부분이 類似하였다.

形態에서는 韓國의 文獻的인 內容과 遺物에서의 內容이 類似하였으며, 특히 現行握手에서는 모든 면에서 文獻 및 遺物의 내용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男子와 女子 襚衣의 共用 品目인 握手에 대하여 치수, 形態, 衣次, 色 등을 比較해 보았는데, 앞으로 韓國과 中國 文獻의 內容을 擴大하여 比較 分析하고, 現行研究의 調査地域 및 對象의 擴大와 出土服飾 襚衣와의 比較 등을 통하여 각 品目에 대한 深層的인 比較 分析은 물론, 體系化 및 合理的

인 보급을 위한 多角的인 努力이 기울여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 國立文化財硏究所, 針線匠. 계문사, 1998.
- 國立民俗博物館, 韓國 喪葬禮. 미진사, 1990.
- 金東旭, 韓國服飾史 硏究. 亞細亞文化社, 1973.
- 金東旭·劉頌玉, 忠北 靑源郡 傳朴將軍墓 出土遺物. 重要民俗資料指定調査報告書. 第83號. 文化財管理局, 1980.
- 金斗憲, "五服制度의 硏究". 震檀學報. 第5卷. 1936.
- 金英淑, 韓國服飾史辭典. 民文庫, 1988.
- 金漢重, 安東誌. 故鄕文化史, 1987.
- 朴璽寶, "朝鮮前期 出土服飾硏究". 服飾. 第19號. 韓國服飾學會. 1992.
- 朴惠仁, 韓國의 傳統婚禮硏究. 高麗大 民族文化硏究所, 1988.
- 白英子, 韓國의 服飾. 경춘사, 1996.
- 石宙善, 衣. 石宙善紀念 民俗博物館, 1985.
-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第2回壽衣特別展. 1982.
- 신준호, 한국민속대사전. 민족문화사, 1991.
- 劉寬順, " 우리나라 襚衣에 關한 硏究 -朝鮮朝를 中心으로-". 博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大學院, 1990.
- 劉寬順, "中國襚衣의 文獻的 考察". 服飾. 第25號. 韓國服飾學會, 1995.
- 劉寬順, 現行 襚衣에 關한 硏究(Ⅱ). 服飾. 第 30號. 韓國服飾學會, 1996.
- 劉頌玉, 韓國服飾史. 修學社, 1998.
- 柳喜卿, 韓國服飾史 硏究. 梨花女大 出版部, 1983.
- 柳喜卿·金美子·姜淳弟, 安東金氏 墳墓 發掘 調査 報告書. Ⅴ.斂襲衣. 溫陽 民俗博物館 學藝硏究室, 1989.
- 李樹鳳, 百濟文化圈域의 喪禮風俗과 風水說話硏究 -湖西·湖南地方을 中心으로-. 百濟文化開發硏究院, 1986.
- 李正玉, "韓國의 四禮服飾에 關한 一硏究 ". 硏究論文集. 第8輯(自然編). 嶺南大學校, 1974.
- 李熙昇, 國語辭典. 民衆書林 編輯局, 1997.
- 임돈희, 祖上祭禮. 대원사, 1996.
- 임명미, 한국의 복식문화(Ⅱ). 경춘사, 1997.
- 임재해, 傳統喪禮. 대원사, 1996.
- 張哲秀, 韓國傳統社會의 冠婚喪祭.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8.
- 정정완,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침선장 정정완의 손길-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주최. 전시회 도록. 탄생Ⅳ. 1999. 4.
- 趙又玄,"朝鮮時代 喪服에 關한 硏究". 博士學位論文. 淑明女大 大學院. 1989.
- 趙孝順, 服飾. 대원사, 1996.
-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 硏究. 一志社, 1988.
- 弘字出版社 編輯部, 國漢最新大字源. 民衆書林, 1984.
- 金長生 輯, 家禮輯覽.
- 金長生 編, 疑禮問解.
- 申義慶 著, 喪禮備要.
- 劉燊·尹宣擧 撰, 家禮源流.
- 柳長源 著, 常變通攷.
- 李宣朝 著, 家禮增解.
- 李縡 編, 四禮便覽.
- 曹好益 撰, 金堉 等 編, 家禮考證.
- 正文公愼終錄(金洙根 : 1798-1854). 襲具.
- 忠文公愼終錄 (金炳國 : 1825-1904). 襲具.
- 韓山李氏愼終錄(金貞圭의 妻〈韓山李氏〉: 1865-1915). 襲具.
- 丘濬 輯, 文公家禮儀節.
- 鄭玄 注, 賈公彥 疏, 儀禮.
- 朱熹 編, 家禮.
- 太祖 撰, 大明集禮.